

## 세계시민교육 대학 강좌개설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와 과제\*

김이경\*\* · 민수빈\*\*\* · 이세미\*\*\*\* · 김해련\*\*\*\*\*

### 요약

본 연구는 대학 수준에서 세계시민교육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필요에 부응하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 의해 4년 간 추진된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과제를 탐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헌 분석, 성과 공유 워크숍 참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 방법을 토대로 지원사업을 강좌 개설 측면, 강좌 운영 측면, 강좌의 학습효과 및 만족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태와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원사업은 총 21개 대학의 학생 1,572명이 참여한 33개 강좌를 통해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대학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주제와 교수진, 교수학습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강의 규모의 제약, 대학 간 격차, 학습효과 관리 도구의 미흡 등은 성과를 제약하는 한계점으로 분석되

\* 이 논문은 2019년 「국내·외 대학 세계시민교육 확산방안 연구」에서 획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한 것임.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주저자), [ekim@cau.ac.kr](mailto:ekim@cau.ac.kr)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교신저자), [sbminn@gmail.com](mailto:sbminn@gmail.com)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jolisemi@cau.ac.kr](mailto:jolisemi@cau.ac.kr)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haeryunzzang@naver.com](mailto:haeryunzzang@naver.com)

었다. 이후 세계시민교육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사업의 양적 확산 방안과 질적 내실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세계시민교육, 대학 강좌, 유네스코, 학습효과, 고등교육

## I. 서론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은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와 혜택을 안겨 주기도 했으나, 국가 간 상호 의존성과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전 지구적 문제는 단일 국가 차원의 해결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평화, 인권, 다양성, 사회 정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춘 세계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한경구 외, 2015; Davies, 2006).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으로(박순용 외, 2015: 15),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시민이라는 자각을 토대로 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출발하였다(Pigozzi, 2006; UNESCO, 2014).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에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감,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 등의 비인지적 기능의 함양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

극적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포함된다(한경구 외, 2015).

세계시민교육은 2012년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이후, 2030년까지 인류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범세계적 아젠다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5 세계교육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시민교육을 국제사회의 교육목표로 의제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관련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이나 교육을 담당할 현장 교원들의 역량 강화 등을 겨냥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세계시민교육 일반화에 필요한 기반 확충과 함께 중요한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김용신, 2013; 이정우, 2017).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세계시민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Perry et al., 2013), 국내 대학이 세계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유네스코 정신을 토대로 세계시민교육 강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계시민교육 강좌가 지향할 미래 좌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동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그 동안 세계시민교육 관련 대학 강좌를 다룬 연구들이 특정 대학에 개설된 과목의 사례 분석(김경아, 2018; 김진해, 2011; 이은숙, 2014)이나 교과목 개발 연구(이희용, 2013; 최선경, 2018) 등 미시적 분석에 그쳤다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 대학 강좌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시적인 접근을 토대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태교육원이 2016~2019년 4년 간 추진해온 「세

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산·정착할 수 있는 과제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 개관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은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초국가적인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말하며(박순용 외, 2015: 15), 아태교육원은 이러한 세계시민의식을 확립하려면 대학에서의 강좌 개설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문제인식에서 2016년부터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대학들의 강좌 개설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지만, 국내 대학에 세계시민교육 학위과정을 개설·운영하고, 범교과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학문적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장기 목표로 표방하였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9b)

신청 자격조건은 고등교육법이 인정하는 대학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4년제 대학으로, 신청 대학은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 세부 계획 및 예산 등을 적시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신청서의 강의 계획, 사업운영 능력,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매년 10개 내외의 대학이 참여 대학으로 선정되어 왔다. 선정 평가기준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심사 내용	배점
강의계획 (70)	1. 강의계획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천가능성</li> <li>- 교육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등</li> <li>• 강의내용 구성의 체계성 및 우수성</li> <li>- 세계시민교육 이론 반영 여부 등</li> <li>• 자체평가계획</li> </ul>	60
	2.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명확성</li> </ul>	10
사업운영 능력 (20)	1. 강좌 개설 운영 능력 및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정규과목(3학점 이상, 교 대 2학점 이상)으로 차년도 개설 여부</li> </ul>	10
	2. 사업부서의 역량 및 운영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교수의 사업 참여의지, 역량 및 전문성</li> <li>• 특강 강사풀 유무, 편성의 적절성</li> </ul>	10
지속 가능성 (10)	1. 강좌의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중·장기 강좌 운영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여부</li> </ul>	10
총 계			100

출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9b: 15.

선정된 대학에는 최대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이를 특강비, 인건비, 학생활동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자료나 주제영역별 강사풀 제공, 아태교육원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제기구 체험관 방문 등의 행정 지원도 제공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친 지원사업에는 21개 대학이 참여하여 33개의 강좌를 개설하였고, 총 1,572명의 학생이 강좌를 수강하였다. 강좌는 전공이나 교직보다는 3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교양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 2. 세계시민교육 대학 강좌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세계시민교육 대학 강좌와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강좌 개설, 강좌 운영, 그리고 강좌의 학습효과나 만족도에 주목하여 특징이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대학 수준에서 개설된 세계시민교육 강좌를 주제로 한 연구로 경희대학교의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좌 분석 연구(김진해, 2011)와 계명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 분석 연구(이은숙, 2014)가 있다. 남플로리다대학(USF)(이혜영, 조혜승, 박수정, 2017)이나 시민대학인 위트레흐트 대학 루즈벨트 칼리지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Sklad et al., 2016)들도 유사한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 대학 강좌 개설 시 유의할 점으로, Jorgenson & Shultz(2012)는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김경아(2018)와 최선경(2018)은 수강생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여러 전공으로 구성된 수강생들 간의 학습 활동은 사고의 다양화를 촉진하고(김경아, 2018),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 간의 협력과 교류는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협력 기반 문제 해결 학습을 경험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최선경, 2018).

둘째,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과 관련하여서 연구자들은 주로 강의 주제, 강사진, 교수학습방법을 분석하였다. 세계시민교육 강의 주제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는 것이 좋고(이숙정, 2017), 통합적인 사고와 창의성,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이은숙,

2014), 수강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 단원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전공의 강사진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희용, 2013; 김수동, 2019)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에 관한 세부 주제 가운데 특히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가 많았는데, 대부분 이론 위주의 강의식 수업 대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슬기, 허혜경, 김혜수(2018)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 강좌 수강생의 46.3%가 교과목 이해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강의 운영 방법으로 토론활동을 선택하였고, 김수동(2019)과 김경아(2018)는 각각 세계시민교육에서의 토론 활동과 워크숍 형태의 교수학습방법을, 그리고 최선경(2018)은 체험 중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세계시민교육 강좌의 학습효과 및 만족도와 관련하여서 이숙정(2017)과 김경아(2018)는 강좌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수강생의 세계시민의식은 수강 사전·사후 검사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인식 개선이나 지식 함양은 물론 행동 변화도 관찰되었다. 세계시민교육 관련 커리큘럼이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텍사스 A&M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ysen, Larey and Katzarska-Miller, 2012).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이나 강좌 운영, 그리고 강좌의 학습효과 및 만족도와 관련하여 일부 대학의 강좌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주로 수행된 탓에, 다수의 세계시민교육 대학 강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의 실태와 성과 및 한계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 대학 강좌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 영역을 강좌 개설 측면과 강좌 운영 측면, 그리고 강좌의 학습효과와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강좌 개설 측면에는 사업 참여 대학의 특성, 지원비, 강좌규모 등을, 강좌 운영 측면에는 강의주제, 강사진, 교수학습방법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성과 공유 워크숍 참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 분석을 위해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각종 국내·외 보고서 및 서적, 논문 외에도 사업 참여 대학들의 사업성과보고서와 아태교육원이 발간한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 운영 사례집을 토대로 강좌 일반 현황, 강의세부내역, 학생활동내역, 강의평가 및 후기 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사업 추진계획, 사업 예산 및 정산내역서 등과 같은 아태교육원 내부 자료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에 대한 보다 현장지향적인 의견을 얻기 위해 아태교육원이 주최한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에 참여하여 수집한 자료와 관찰한 내용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워크숍은 2019년 11월 27일에 진행되었으며, 아태교육원 관계자 및 세계시민교육 강좌 전담교수 12인이 참석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자문 대상은 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관련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해 온 국내 전문가 4인이다. 질문지는 강의 개설 유형, 교수진, 교수학습방법, 수강생, 강의평가, 강의 운영 등 세계시민교육 주요 영역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개발하였으며, 자문은 2019년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구두 및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 IV. 강좌개설 지원사업 성과 및 한계점 분석

##### 1. 강좌 개설 측면

###### 1) 실태

지난 4년 간 사업에 참여한 국내 21개 대학의 소재지와 유형을 보면 서울 소재 종합사립대학교가 가장 많고, 참여 대학 가운데 7개교는 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하였다. 참여 대학의 소재지, 유형, 참여 횟수 및 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강좌 운영을 위해 지원된 사업비는 대학별로 최소 56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배정되었으며, 특강비, 전담교수 및 보조인력 인건비를 포함하는 인건비에 60% 이상을 지출한 대학이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에 대한 직접성 경비인 현장활동경비는 전체 지원액의 15% 미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각 강좌의 수강생은 평균 47.6명으로 나타났으며, 적게는 10명부터 많게는 200명까지 학교에 따라 편차가 컸다. 수강생의 소속 학과는 교육학, 국제학 등 세계시민교육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분야부터 신소재학, IT공학, 생명과학 등 이공계열 그리고 조리과학과, 축구학과, 수의예과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표 2〉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2016년-2019년 현황)

소재지	대학명	유형	참여횟수	참여 연도	
수도권	서울	경희대학교	사립	1회	2016
		고려대학교	사립	3회	2016, 2017, 2019
		명지대학교	사립	1회	2019
		서강대학교	사립	1회	2019
		서울교육대학교	국립	2회	2018, 2019
		서울대학교	국립대법인	3회	2016, 2018, 2019
		성신여자대학교	사립	1회	2017
		숙명여자대학교	사립	4회	2016, 2017, 2018, 2019
		연세대학교	사립	1회	2016
	인천	인천대학교	국립대법인	1회	2018
경기	한신대학교	사립	1회	2016	
비수도권	부산		-		
	대구		-		
	광주	호남대학교	사립	1회	2017
	대전	배재대학교	사립	1회	2016
	울산		-		
	강원		-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국립	1회	2019
	충남	공주대학교	국립	3회	2016, 2017, 2019
	전북		-		
	전남	전남대학교	국립	1회	2018
	경북	영남대학교	사립	1회	2017
		한동대학교	사립	2회	2017, 2018
	경남	경상대학교	국립	1회	2016
		진주교육대학교	국립	2회	2018, 2019
	제주	제주대학교	국립	1회	2019

## 2) 성과와 한계점

사업 참여대학들이 개설한 강좌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를 판단해 볼 때,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대학들의 깊은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 대학들 가운데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에 공감하여 사업에 재 참여하거나 대학 자체적으로 강좌 운영을 지속한 경우가 많았다. 가령, 경희대학교는 2016년 사업에 참여한 후 2019년부터 ‘세계와 시민’ 교과를 교양 필수 과목으로 자체 개설하였는데, 이는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대학의 일반 교육과정에 성공적으로 확산 및 정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설된 강좌가 주로 교양 과목으로 편성되어 수강생의 전공에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유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균형 잡힌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보다 다각적인 관점을 경험하는 데에 효과적이다(김경아, 2018; 최선경, 2018).

아태교육원이 강좌 운영을 위해 특강비나 현장활동경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수강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이다. 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에 따르면, 특강비를 활용하여 초청한 외부 강사는 실천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현장활동경비를 활용하여 아태교육원을 방문하는 등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에서의 지식과 실천의 연계 그리고 교과과정과 비교과 활동 간 통합의 중요성(이혜영, 조혜승, 박수정, 2017)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 대학 수의 불충분, 소재지의 편중, 교원양성기관의 참

여 부족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4년 간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수 21개는 전국에 위치한 200개가 넘는 대학의 10% 정도에 불과한 제한적인 규모이다. 참여 대학 소재지 또한, 9개교가 서울에 위치해 있고 비수도권 가운데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북 소재 대학은 전무하다는 점, 그리고 교원양성기관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은 세계시민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다. 강좌의 규모 또한 강좌 당 평균 수강인원이 47.6명으로, 초·중등 학급 규모보다 커서 효과적인 학생 참여 및 실천 지향적 수업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지원사업 참여 교수들은 학생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을 위해 수강인원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2. 강좌 운영 측면

### 1) 실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을 통해 개설된 강좌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세계화, 인권, 문화 다양성, 평화, 지속가능성, 기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중 세계화 주제가 총 40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교육 강의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강의 담당 강사진의 경우 교수 인력과 교수 외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수 인력에는 과목담당 전담교수, 보조 전담교수, 대학 외부 교수가, 교수 외 인력에는 연구원, 교사, 국제기구 및 국내기구 인사 등이 포함된다. 교수에서는 강의 전담교수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가장 많았다. 강의 전담교수는 대부분 1명이며 내국인이었으나, 21개 대학 중 1개 대학에서는 한국인 전담교수 5명 외

〈표 3〉 세계시민교육 강좌의 강의주제 및 횟수(2016년-2019년)

구분		강의주제	횟수	합계
1	세계화	글로벌 이슈	19	40
		국제개발협력 (정부, 기업, NGO 등)	11	
		이주, 이민	4	
		난민과 이민	3	
		공동체의식	1	
		인종 갈등	1	
		올림픽 운동	1	
2	인권	인권	17	30
		젠더 이슈 및 성 평등	7	
		빈곤	3	
		국제법	2	
		교육 불평등	1	
3	문화 다양성	다문화	24	24
4	평화	평화	19	23
		폭력과 심리적 안전	1	
		통일	1	
		군사적 갈등 이해 (국방정책)	1	
		전쟁과 안보	1	
5	지속가능성	생태 환경 및 기후 변화	5	5
6	기타	세계시민교육 역사	7	29
		윤리	5	
		소통	5	
		민주주의	3	
		종교	2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	2	
		학교(대학)교육과 세계시민교육	2	
		미국대선	1	
		리더십	1	
		애국심	1	
합계			151	

〈표 4〉 세계시민교육 강좌의 교수학습방법(2016년-2019년)

교수학습방법 유형		횟수
2016	외부 인사 특강	59
	내부 인사 특강	11
	전담 교수 강의	11
	현장 방문	8
	문집, 보고서 작성	5
	학습지도안(교수설계)	3
	수업시연	2
	UCC, 동영상 제작	1
	세미나, 학술대회 참가	1
	조별(개인) 발표 및 토론	1
2017	외부 인사 특강	30
	내부 인사 특강	19
	전담 교수 강의	7
	현장방문	3
	세미나, 학술대회 참가	3
	조별(개인) 발표 및 토론	3
	문집, 보고서 작성	1
	UCC, 동영상 제작	1
2018	영화감상	1
	외부 인사 특강	36
	내부 인사 특강	24
	전담 교수 강의	8
	현장방문	8
	UCC, 동영상 제작	3
	문집, 보고서 작성	2
	조별(개인) 발표 및 토론	2
	학습지도안(교수설계)	1
	수업시연	1
2019	외부 인사 특강	45
	내부 인사 특강	33
	전담 교수 강의	12
	현장방문	8
	문집, 보고서 작성	4
	조별(개인) 발표 및 토론	4
	영화감상	2
	UCC, 동영상 제작	2
	수업시연	1
	세미나, 학술대회 참가	1
합계		367

에 외국인 교수 3명도 강의를 담당했다. 한편, 교수 외 인력 중에는 연구원이 가장 많았으며 교사, 공무원, 국제기구 인사, 법조인, 외교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인사들이 외부강사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강좌에 활용된 교수학습방법은 강의 및 특강, 학생 참여활동, 현장방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 참여활동에는 발표 및 토론, 보고서 작성, UCC 제작 등이 포함되었다. 교수학습방법 중 외부인사 특강이 총 170회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었으며, 학생 참여활동 중에는 현장방문이 많았다(<표 4> 참조).

## 2) 성과와 한계점

세계시민교육 강좌 운영을 강의주제, 강사진,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그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과를 보면, 세계시민교육 강의주제는 세계화, 인권, 문화 다양성, 평화, 지속가능성 등 세계시민교육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이슈, 성 평등, 환경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강의주제도 포함된 점은 세계시민교육 강좌가 다양한 이슈를 포괄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의 방향에 부합하며(이숙정, 2017; 이은숙, 2014),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을 담당한 강사진의 경우에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외부인사들이 많았는데, 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융·복합적인 사고를 촉진시키며 관련 분야로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는 강의식 전달 수업 외에도 현장방문을 비롯하여 UCC·동영상 제작, 조별 발표 및 토론, 수업 시연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활용되었는데, 이러한 학생 참여활동 위주의 수업은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함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김수동, 2019; 정슬기, 허혜경, 김혜수, 2018; 최선경, 2018).

그러나 강좌 운영에 있어서 일부 강좌들이 세계시민교육과 다소 동떨어진 주제들을 다룬 점이나 대학 간 강사진의 불균형, 외부인사 특강의 과다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이나 신규 참여 대학의 경우 지리적 여건과 정보의 부족으로 세계시민교육에 정통한 최고의 강사진 섭외가 어려워서 대학 간 교육의 질적 격차로 이어지기도 했다. 교수학습방법 중 일회성 외부인사 특강이 많다는 점도 학생들의 학습이 기초에서 심화 단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수강생이 강좌 운영 후기에서 더 많은 토론과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한계임을 알 수 있다.

### 3. 강좌의 학습효과 및 만족도

#### 1) 실태

##### (1) 강좌의 학습효과

강좌의 학습효과는 유네스코가 분류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영역인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UNESCO, 2015)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인지적 영역의 학습효과로 수강생들은 강좌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함께 관련 지식정보의 습득을, 그리고 교수진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글로벌 이슈 인식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꼽았다.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계시민 개념과 특징을 바탕으로 인권, 문화,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 등을 다루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세계시민이라는 것과 우리가 갖추어야 할 행동이나 생각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8, 수강생 수업 후기)

“심층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시민교육이 단지 올바르고 좋은 것이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진지하고 치열한 지적, 현실적 고민과 논의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흥미를 유발하였다.” (2018, 교수 강좌 운영 후기)

둘째, 사회·정서적 영역의 학습효과로 학생들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각과 소통 능력의 증진을 꼽을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세계시민이 되려면 언어가 가장 중요한 무기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며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태도와 마음이며,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며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 자기만의 창의적인 생각과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세계시민이 아닌가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017, 수강생 수업 후기)

또한 교수학습방법으로 토론, 팀별 과제, 발표 등을 활용하며 학생들이 협동심과 소통 및 공감 능력을 함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를 통해 제일 많이 배운 점이 있다면 다양한 토론활동을 통해 같이 생각해보고, 제 의견을 발표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업을 통해 옆자리의 학우들과 교수님께서 주신 논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발표를 통해 말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9, 수강생 수업 후기)

셋째, 행동적 영역에서 수강생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이슈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천하는 행동 역량을 함양하는 학습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룹 프로젝트 수행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스스로의 역량을 시험, 적용할 수 있어 능동적인 문제해결력 함양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실제로 국제개발의 현장을 체험함으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시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파악한 뒤, 각각 보건, 교육, 인프라 시설 관리 등의 팀으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로 우리의 역량을 시험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2017, 수강생 수업 후기)

21세기에는 글 못지않게 영상과 이미지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는 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미디어 문해력과 영상 표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수강생들은 팀별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동영상 제작하였다. 학생들은 주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실질적인 영상 제작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세계시민교육 강좌가 교원양성대학의 전공 과목으로 개설된

경우,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과정안을 직접 제작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모델을 개발하며 교사 자질을 강화할 수 있었다. 실제 강좌를 수강했던 예비교사가 교사로 임용된 이후 당시 과제로 제작했던 교수학습과정안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 (2) 강의 만족도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강좌를 운영한 총 21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이 자체 강의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들의 강의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세계시민교육 강좌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이 강좌 수강 동기, 강좌의 효과 및 만족도 등 3~4개 항목으로 총 10개 내외의 객관식 문항과 서술형 문항을 제작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증진 효과는 5점 만점에 평균 4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좌를 수강하기 전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원래 관심이 있던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도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세계시민성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기초와 학기말 두 번에 걸쳐 세계시민성을 조사한 대학도 있었는데, 모든 학생의 학기말 평균이 학기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다년도에 걸쳐 강좌를 연속으로 개설한 대학에서 더 높았는데, 전년도에 자체 평가 결과를 반영한 수업 개선이 여기에 일조하였다.

## 2) 성과와 한계점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영역인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에서 중요한 학습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한다는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의 기본 목적(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9b)을 달성한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인지적 학습 영역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다양한 주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정서적 학습 영역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소통 및 공감능력을 증진하였으며, 행동적 학습 영역에서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함양은 물론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교육 강좌의 강의 만족도도 평균 4점 이상으로 높았던 점은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세계시민교육 강좌를 수강한 21개 대학의 약 1,570여명의 학부생들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은 가장 아쉬운 한계점이다. 소수의 대학 강좌 개설만으로는 대학생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계시민교육 강좌의 학습효과와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만족도 조사도구가 부재한 점도 문제이다. 지난 4년간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을 통해 강좌를 운영한 대학 중 약 33%만이 자체 강의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 전체 강의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으나 이는 세계시민교육 강좌만의 특성을 반영한 강의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르면, 강좌를 운영하는 전담교수

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라 강의 평가가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강좌의 성과를 관리하여 학생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대학과 그렇지 못하는 대학 간의 격차를 유발시킬 수 있다.

## V.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의 과제

본 연구를 통해서 아태교육원이 지난 4년 간 추진해온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의 실태와 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 단계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는 더욱 확대하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계 극복 전략으로서의 과제를 지원사업의 양적 확산 방안과 질적 내실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의 양적 확산 방안으로는 첫째,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의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 대학과 개설 강좌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200여개의 대학과 약 2백만 명 이상의 대학생 수를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소수 대학에 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사업 참여 대학을 확대할 경우, 학교 소재지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2년 이상 연속 개설 강좌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속 참여 대학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

둘째, 세계시민교육 대학 강좌가 안정적으로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쌍방적인

협력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아태교육원의 니즈와 대학의 니즈가 부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아태교육원과 대학 간 협약 체결 등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 강좌를 필수 강좌로 지정하거나, 대학에서 자체 개설하고 있는 유사 강좌에 학습 자료 혹은 강사진을 지원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이도 강좌나 수강생 확대를 도모해 볼 수 있다.

셋째, 예비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함양은 장기적으로 초중등 학생의 세계시민 역량 함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원양성기관에의 강좌 개설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 참여를 위한 대학 선정 단계에서 교대나 사대의 선정 비율을 높이거나 별도의 전형을 실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질적 내실화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양적 확대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그 중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질적 내실화 과제로는 첫째, 사업 참여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지난 4년 간 선정 평가를 좌우한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한 ‘강의계획 및 내용’이다. 이제는 평가 기준을 사업계획, 사업 목적 부합성, 강좌의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배점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강의의 질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강사진과 관련하여 대학이나 전담교수의 여건 및 외부 강사진의 역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학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모든 강좌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때, 수강생 만족도 조

사 결과 등을 활용한 우수 초빙강사 인력풀의 적극적 관리, 아태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원격교육 플랫폼인 GCED Online Campus를 통해 온라인 강의 영상을 제작·공유하는 방안, OCW나 MOOC와 같은 온라인 강의를 공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교육 강좌의 학습 효과와 개선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교육 효과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한편, 대학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태교육원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효과를 진단·분석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학마다 커리큘럼과 강좌 유형, 수강생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할 때 획일적인 만족도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핵심 조사 영역과 내용을 사업 평가기준에 포함하거나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여 대학 측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난 4년 간 고등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아태교육원이 추진한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지원사업」의 실태와 성과 및 한계점을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세계시민교육이 초·중등교육을 넘어 고등교육 단계에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세계시민으로서 대학생들의 태도와 자질을 한층 높이려는 아태교육원의 귀중한 노력이 국내 및 국외로 더욱 내실 있게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경아(2018).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과 리더십’교양교과목의 사례 연구: Focus Group Interview 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2(3), 255-277.
- 김수동(2019).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학의 세계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연구. **문화와융합**, 41(2), 745-774.
- 김용신(2013). 2011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의 글로벌교육 지향성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20(1), 1-11.
- 김진혜(2011). 대학 교양교육의 새로운 모색: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글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3), 107-134.
- 박순용, 이경한, 조대훈, 함영기(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6). **2016 세계시민교육 대학강좌 개설 지원사업 사례집**.
- \_\_\_\_\_ (2017). **2017 세계시민교육 대학강좌개설 지원사업 사례집**.
- \_\_\_\_\_ (2018). **2018 세계시민교육 대학강좌개설 지원사업 사례집**.
- \_\_\_\_\_ (2019a). **2019 세계시민교육 대학강좌개설 지원사업 사례집**.
- \_\_\_\_\_ (2019b). **2020년도 세계시민교육강좌 개설지원사업 추진계획**.
- 이숙정(2017). 고등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와 개선방안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7(10), 433-443.
- 이은숙(2014). 글로벌 시대 교양강좌개발 방향 모색: 계명대학교 균형교양과목 <서양문화으로 소통하기>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6), 727-754.
- 이정우(2017). 사회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교육연구**, 68, 57-88.
- 이혜영, 조혜승, 박수정(2017). 미국 대학의 세계시민교육 사례 연구: South Florid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9(1), 3-30.
- 이희용(2013). 융복합 교양교과목 <글로벌 시민정신 (Global Citizenship)> 개발 연구. **교양교육연구**, 7(3), 197-232.



- 정슬기, 허혜경, 김혜수(2018). 대학생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 교과목 개발 및 운영사례: ‘글로벌 시민교육’강좌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2(2), 89-107.
- 최선경(2018). 글로벌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방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교과목 개발안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2(4), 139-159.
- 한경구, 김종훈, 이규영, 조대훈(2015).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Davies, L.(2006). Global citizenship: abstraction or framework for action?. *Educational review*, 58(1), 5-25.
- Jorgenson, S., & Shultz, L.(2012).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 in post-secondary institutions: What is protected and what is hidden under the umbrella of GCE. *Journal of Global Citizenship & Equity Education*, 2(1), 1-22.
- Perry, L., Stoner, K. R., Stoner, L., Wadsworth, D., Page, R., & Tarrant, M. A.(2013). The importance of global citizenship to higher education: The role of short-term study abroad. *British Journal of Education, Society & Behavioral Science*, 3(2), 184-194.
- Pigozzi, M. J.(2006). A UNESCO view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al Review*, 58(1), 1-4.
- Reysen, S., Larey, L. W., & Katzarska-Miller, I.(2012). College course curriculum and global citize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Global Learning*, 4(3), 27-40.
- Sklad, M., Friedman, J., Park, E., & Oomen, B.(2016). ‘Going Glocal’: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t a Dutch liberal arts and sciences college. *Higher Education*, 72(3), 323-340.
- UNESCO.(2014).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Paris: UNESCO.
- UNESCO.(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 Abstract

###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niversity Course Development Project

Kim, Ee-gyeong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Min, Soo-bin

(Ph.D. candidate,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Lee, Se-mi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Kim, Hae-ryun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GCED University Course Development Project」 promoted by APCEIU. Using such research methods as literature review, workshops, and expert consultation, we analyzed the four-year project surrounding course providers, course contents, and student learning and satisfaction. The findings show that the project has heightened universities' interest in GCED through 33 courses involving 1,572 students from 21 universities. It was also confirmed that a variety of supports allowed students to have meaningful learning experiences. However, large class sizes, disparity among universities, and the absence of performance measuring tools seemed to limit the success of the

project. As a strategy for overcoming these limitations, we suggested the tasks in terms of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Key words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University Course, UNESCO, Learning Effectiveness, Higher Education*

투고신청일 : 2020. 02. 29

심사수정일 : 2020. 04. 11

게재확정일 : 2020. 04. 13